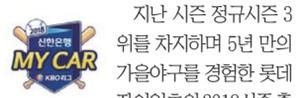


불펜 단단해진 KIA 선두 탈환 넘본다

프로야구 전망대



지난 시즌 정규시즌 3위를 차지하며 5년 만의 가을야구를 경험한 롯데 자이언츠의 2018시즌 출발이 불안하다. 롯데는 13경기를 치른 가운데 2승 11패로 최하위에 그치고 있다. 개막 7연패로 뼈저리며 출발한 롯데는 1일 NC 다이노스전에서 시즌 첫 승을 거둔 뒤 다시 3연패에 빠졌다. 지난 주말 LG 트윈스와 3연전에서는 1승 2패로 승패 마진을 회복하는 데 실패했다. 롯데는 올 시즌 가장 먼저 10패를 기록한 팀이다. 리그 첫 10패 팀이 포스트시즌에 진출한 건 2009년 롯데가 마지막이었다. 9년 전 롯데는 6승 10패로 시즌을 출발했지만, 최종 성적 66승 67패 4위로 가을 야구 막차를 탔다. 최하위 탈출을 목표로 안간힘쓰는 롯

한화와 주중 3연전...작년 11승 5패 우위

롯데, KIA·넥센 상대 '꼴찌' 탈출 시도

데가 이번 주 까다로운 상대를 줄줄이 만난다. 롯데는 10~12일 울산 문수구장에서 넥센 히어로즈와 올해 첫 3연전을, 13~15일에는 디펜딩챔피언 KIA 타이거즈와 방문 3연전을 벌인다. 현재 롯데는 팀 타율(0.251)과 평균자책점(6.63) 모두 리그 최하위다. 1선발로 기대했던 외국인 투수 펠릭스 두브론트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선발승은 신인 윤성빈이 7일 사직 LG전에서 딱 한 번 거뒀을 뿐이다. 타선에서는 4번 타자 이대호가 타율 0.245에 홈런 1개로 잠잠한 가운데 외국인 타자 앤디 번즈까지 타율 0.200으로 기대에 못 미친다. 롯데는 선발 로테이션대로라면 넥센 3연전에 김원중~송승준~두브론트, KIA 3연전에 윤성빈~브룩스 레일리~김원중

이 등판할 예정이다. 지난주 4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8승 5패로 공동 3위까지 순위를 끌어 올린 KIA는 이번 주 선두 탈환을 넘본다. 탄탄한 선발진에 불펜까지 단단해진 KIA는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한화 이글스와 주중 3연전을 벌인다. KIA는 지난 시즌 한화를 상대로 11승 5패, 롯데를 상대로는 9승 7패로 우위를 보였다. 9승 3패로 선두로 치고 나선 두산 베어스는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삼성 라이온즈와 주중 3연전을 벌이고, 홈런 군단으로 거듭난 kt 위즈는 NC 다이노스와 주중 방문 3연전에서 상위권 안착을 노린다. 부산 원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LG는 SK 와이번스와 잠실 3연전을 치른다. 주말에는 LG와 kt가 잠실, KIA와 롯

◇프로야구 주간 일정(10일~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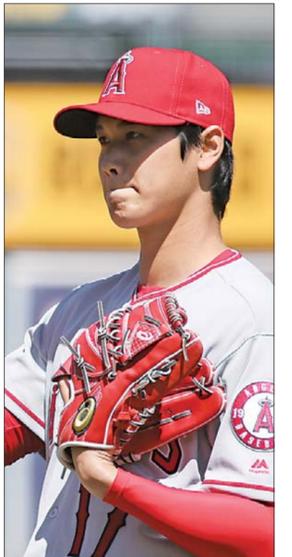
구장	10일(화)~12일(목)	13일(금)~15일(일)
잠실	SK-LG	kt-LG
대전	KIA-한화	삼성-한화
마산	kt-NC	
대구	두산-삼성	
울산	넥센-롯데	
광주		롯데-KIA
문학		NC-SK
고척		두산-넥센

데가 광주, SK와 NC가 문학, 넥센과 두산이 고척, 한화와 삼성이 대전에서 각각 만난다. 미세먼지가 다시 한 번 리그 일정 진행의 변수가 될지도 관심사다. 지난 6일 잠실과 문학, 수원에서 열린 KBO리그 3경기는 짙은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열리지 못했다. '미세먼지 취소'는 KBO리그 37년 역사상 최초였다. 이번 주 역시 1~2차례 미세먼지가 한 번도 덮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美 언론 "오타니, 지구인 맞아?"

개막 10경기서 3홈런, 2승 메이저리그 역대 2번째

일본이 자랑하는 '야구 천재' 오타니 쇼헤이(24·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사진)가 메이저리거로 보낸 첫 11일은 놀랍다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다. 오타니는 타자로서 에인절스 팀 내 홈런 1위(3개), 타율 1위(0.389), OPS(출루율+장타율) 1위(1.310)에 올랐고, 투수로서는 두 번째 등판이자 홈 데뷔전에서 6회까지 퍼펙트 피칭을 했다. 오타니는 9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에인절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 7이닝 1피안타 1볼넷 12탈삼진 무실점 승리를 펼치고 시즌 두 번째 승리를 따냈다. 지난 2일 오클랜드전에서 6이닝 3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됐던 오타니는 그 후 지명타자로 나서 3경기 연속 홈런 쇼를 펼쳤다. 이날 오타니는 7회초 1사 후 마커스 세미엔에게 좌전 안타를 내주기 전까지 첫 19타자를 상대로 단 한 명에게도 출루를 허용하지 않았다. 지난 2일 첫 선발 등판 경기까지 포함하면 27타자 연속 범타 행진을 벌였다. 메이저리그 공식 사이트인 MLB닷컴에 따르면 개막 10경기에서 2승과 3홈런을 나란히 기록한 선수는 딱 한 명 있었다. 1919년 워싱턴 세너츠의 짐 쇼가 최초였고, 이제 오타니가 그 기록에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미국 스포츠전문 웹사이트인 '데드스핀닷컴'은 "오타니 쇼헤이가 지구인이 아닌 것이 확인해졌다"고 했고, 야후스포츠는 "오타니가 첫 홈 선발 등판에서 홈팬들의 눈을 빼놓았다"고 보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역 신문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는 "오타니가 완벽에 가까운 홈 데뷔전을 치렀다"며 "퍼펙트 행진이 깨진 뒤 4만4천742명의 관중들이 기립박수로 23세 신인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상대로 스리런 홈런을 쏘아올렸다. 5일에는 지난해 아메리칸리그 사이영 수상자인 코리 클루버에게 홈런을 뺏어냈고, 7일에는 비거리 137m 대형 홈런으로 3경기 연속 홈런 행진에 이어갔다. 메이저리그 공식 사이트인 MLB닷컴에 따르면 개막 10경기에서 2승과 3홈런을 나란히 기록한 선수는 딱 한 명 있었다. 1919년 워싱턴 세너츠의 짐 쇼가 최초였고, 이제 오타니가 그 기록에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미국 스포츠전문 웹사이트인 '데드스핀닷컴'은 "오타니 쇼헤이가 지구인이 아닌 것이 확인해졌다"고 했고, 야후스포츠는 "오타니가 첫 홈 선발 등판에서 홈팬들의 눈을 빼놓았다"고 보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역 신문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는 "오타니가 완벽에 가까운 홈 데뷔전을 치렀다"며 "퍼펙트 행진이 깨진 뒤 4만4천742명의 관중들이 기립박수로 23세 신인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8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 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막을 내린, 마스터스 토너먼트 우승자 패트릭 리드(미국)가 트로피를 들고 미소짓고 있다. 최종합계 15언더파 273타를 기록한 리드는 14언더파 274타의 리키 파울러(미국)를 1타 차로 따돌리고 생애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의 영예를 누렸다. /AP-연합뉴스

패트릭 리드, 생애 첫 마스터스 우승

파울러 1타 차 준우승...우즈 1오버파 공동32위

패트릭 리드(28·미국)가 '명인 열전' 마스터스 토너먼트(총상금 1천100만 달러) 우승을 차지했다. 리드는 9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파72·7천435야드)에서 열린 제82회 마스터스 토너먼트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3개로 1언더파 71타를 쳤다. 최종합계 15언더파 273타를 기록한 리드는 14언더파 274타의 리키 파울러(미국)를 1타 차로 따돌리고 생애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의 영예를 누렸다. 우승 상금은 198만 달러(약 21억1천만원)다. 조던 스피스(미국)는 이날 하루에 8타를 줄이는 맹추격을 벌였으나 13언더파 275타로 3위에 만족해야 했다. 스피스는 4라운드 한때 공동 선두까지 오르며 우승권을 위협했지만 마지막 18번 홀(파4)에서 보기가 나오는 바람에 3위로 경기를 마쳤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했다면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할 수 있었던 로리 매

길로이(북아일랜드)는 9언더파 279타로 공동 5위에 머물렀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는 최종합계 1오버파 289타로 공동 32위, 한국 선수로는 유일하게 출전한 김시우(23)는 1언더파 287타로 공동 24위를 각각 기록했다. 재미교포 아마추어 덕 김(22)은 8오버파 296타, 공동 50위에 머물렀지만 아마추어 선수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을 냈다. 3라운드까지 14언더파를 기록, 매길로이에 3타 앞선 리드는 이날 뜻밖의 추격자에 진땀을 흘렸다. 최종 라운드를 앞두고 생애 첫 메이저 우승을 노리는 리드와 '커리어 그랜드 슬램'에 도전하는 매길로이의 경쟁이 예상됐지만 정작 리드를 위협한 것은 스피스였다. 스피스는 3라운드까지 5언더파로 리드와 9타 차이나 나는 9위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1, 2번 홀 연속 버디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보이더니 전반에만 5타를 줄

이며 순식간에 선두 경쟁에 합류했다. 리드도 만만치 않았다. 11번 홀(파4) 보기로 공동 선두를 허용했지만 12번 홀(파3) 버디로 다시 리드를 되찾은 것이다. 그러나 스피스 역시 15번 홀(파5) 버디로 추격에 재시동을 걸었고, 16번 홀(파3)에서는 10m 긴 거리 버디 퍼트를 쫓아 넣고 다시 공동 선두에 올랐다. 리드는 14번 홀(파4) 버디로 다시 1타 차 리드를 잡으며 한숨을 돌렸고, 스피스가 18번 홀 티샷 실수가 나오는 바람에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리드는 15번부터 18번 홀까지 연달아 파를 침착하게 지키면서 1타 차 리드도 끝까지 지켜냈다. US여자오픈과 브리티시여자오픈을 제패한 박인비가 한국여자오픈에서 우승한다면 내셔널타이틀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다. 13년 만에 한국여자오픈 무대에 오르는 박인비는 대회 조직위원회에 "프로 선수 가 된 뒤에도 꼭 참가해서 우승에 도전하고 싶었던 대회"라면서 "기회가 찾아왔으니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내겠다"고 우승에 대한 의욕을 숨기지 않았다. /연합뉴스

박인비, KLPGA 정상 노려 기아차 한국여자 오픈 출전

커리어그랜드슬램에 올림픽 금메달,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는 등 이루지 못한 업적이 없는 박인비(30)가 딱 하나 채우지 못한 갈증이 있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대회 우승이다. 프로 선수가 된 이후 9년 동안 19차례 KLPGA투어 대회에 출전했지만 준우승만 6번 했을 뿐 우승과 인연이 없었다. 박인비는 오는 6월14일부터 나흘 동안 인천 배어즈베스트 청라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KLPGA투어 기아자동차 한국여자 오픈에 출전하기로 했다고 9일 대회 조직위원회가 밝혔다. US여자오픈과 브리티시여자오픈을 제패한 박인비가 한국여자오픈에서 우승한다면 내셔널타이틀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다. 13년 만에 한국여자오픈 무대에 오르는 박인비는 대회 조직위원회에 "프로 선수가 된 뒤에도 꼭 참가해서 우승에 도전하고 싶었던 대회"라면서 "기회가 찾아왔으니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내겠다"고 우승에 대한 의욕을 숨기지 않았다. /연합뉴스

추신수, 오승환 상대로 중전 적시타

추신수(36·텍사스 레인저스)가 동갑내기 친구 오승환(36·토론토 블루제이스·사진)을 상대로 두 번째 맞대결에서도 안타를 쳤다. 추신수는 9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토론토와 홈경기, 3-7로 뒤진 8회말 1사 1, 2루에서 오승환과 마주했다. 1사 1루에서 등판한 오승환은 대타 노마 마자라에게 우전안타를 허용했고, 드루 로빈슨은 2루 뜬공으로 처리했다. 그리고 추신수와 운명적으로 맞섰다. 오승환은 직구를 감춘 채, 추신수와 상대했다. 초구 체인지업으로 추신수의 헛스윙을 끌어냈고, 다시 체인지업으로 유인구를 던졌다. 볼 카운트 1볼-1스트라이크에서는 좀처럼 던지지 않던 커브를 구사해 볼 카운

트를 1볼-2스트라이크로 유리하게 끌고 갔다. 추신수는 3구째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다. 하지만 4구째 체인지업 유인구에 속지 않은 추신수는 시속 121km 커브를 받아쳐 중견수 앞으로 향하는 적시타를 쳤다. 오승환은 공이 내야를 빠져나가는 장면을 바라보며 허무한 표정을 지었다. 추신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앞선 투수가 내보낸 주자에게 득점을 허용한 오승환은 아쉬움 속에 마운드를 내려갔다. 이날 오승환의 성적은 1/3이닝 2피안타 무실점이다. 추신수와 오승환은 2016년 6월 19일 이후 2년여 만에 투타 맞대결을 펼쳤다. /연합뉴스



한국 남자컬링, 세계랭킹 8위 '역대 최고'

세계선수권 4위 차지했다. 이에 따라 기존 16위이던 세계랭킹도 역대 최고인 8위로 끌어 올렸다.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스웨덴은 세계랭킹 1위로 올라섰다. 기존 세계랭킹 1위 캐나다의 세계선수권 결승에서 스웨덴에 패해 은메달을 획득하고 랭킹도 2위로 밀려났다. 미국, 스위스, 스코틀랜드, 노르웨이, 일본이 3~7위를 이루고 있다. 지난날 세계여자컬링선수권에서 5위를 거둔 한국 여자컬링은 세계랭킹 6위에 올라 있다. /연합뉴스

한국 남자컬링이 세계랭킹 '톱10'에 진입했다. 세계컬링연맹(WCF)이 9일 발표한 남자컬링 세계랭킹에서 한국은 8위를 차지했다. 이날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폐막한 2018 세계남자컬링선수권대회 활약이 랭킹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 김창민 스킵과 성세현, 오은수, 김민찬, 이기복으로 구성된 남자컬링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4위를